

## ‘스티로폴, 환경을 담다’

제35회 국제환경산업기술 및 그린에너지전(ENVEX) 참가



협회는 ‘스티로폴, 환경을 담다’라는 주제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5회 국제환경산업기술 및 그린에너지전’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업체 201개소,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 등 해외 23개국에서 109개소 등 총 310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스티로폴 제품의 특징과 포장가능성, 스티로폴의 무해성과 규제해제, 스티로폴 재활용 과정 및 제품, 스티로폴 재활용률과 성과 등을 홍보하는 협회 전시관은 스티로폴을 재활용한 건축 자재를 사용한 상업용 인테리어를 선보여 재활용 제품의 실제 사용 효과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버려진 스티로폴의 화려한 변신에 2,800여 명의 방문객들을 놀라게 했다.

현장에서는 스티로폴 재활용과 관련 된 퀴즈 풀기 행사도 진행하여 퀴즈를 맞춘 방문객들에게는 스티로폴 재활용 사인액자 증정 또는 커피를 제공하였다. 퀴즈 참여자도 630여 명으로 예년의 240여명에 비해 2.6배 증가하였다.

2012년 스티로폴 포장재의 재활용 실적은 76.2%를 기록하였으며 재활용 제품의 수출 실적은 590억 원에 달해 자원 재활용을 통한 산업 발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전시회를 통해 협회는 방문객들에게 스티로폴 재활용의 성공은 분리배출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실천을 당부했다.

